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아프리카돼지열병<br>중앙사고수습본부<br>보도 설명자료 | 제공일  | 2019년 10월 14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관부서 |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<br>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<br>박찬용 팀장/심은수 사무관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| (044-201-6527/7243)<br>김상경 과장/정재환 서기관<br>(044-201-2511/2515) |

제목 : 환경부는 번식기 도래 전 발생지역에서 멧돼지 이동  
저지방안을 마련하고 포획을 추진할 예정이며, 지난 5월  
이후 이미 접경지역과 전국 양돈농가 주변에 대해서  
멧돼지 사전포획을 허용해왔음

[한국일보 2019.10.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발생지역과 그 주변에 대해 총기 포획 금지 조치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, 11~12일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, ‘야생멧돼지 ASF 긴급행동지침(SOP)’에 따라 집중사냥지역을 구분한 것임
- 번식기에 일부 개체의 이동성이 다소 증가하나 수십 km 이상의 이동은 대부분 수렵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, 발생지역에서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후 총기 포획을 추진할 계획임
-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 5월 이후, 접경지역과 전국 양돈농가 주변에 대해 멧돼지 사전포획을 허용해 왔음(9.17~,발생지역과 주변지역은 제외)
- 2019.10.14.(월) 한국일보에 보도된 <“멧돼지 번식기에 하루 100km나 이동하는데.. 포획 허용시기 늦었다”>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## 1. 기사 내용

- ① 환경부는 그간 멧돼지 총기포획을 금지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방향을 전환하여 감염지역 내 집중사냥지역을 구분하여 총기포획을 시행하기로 함
- ② 멧돼지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11월 번식기 이전에 하루빨리 포획을 했어야 하는데 멧돼지 포획 허용 시기가 늦어 적절한 시기를 놓침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내용

### ①에 대하여

-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발생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총기 포획을 금지하고, 나머지 지역은 총기 포획을 강화하는 조치를 일관적으로 유지해 왔음
- 10.11~12일 DMZ 철책 이남의 야생멧돼지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(ASF)이 발생함에 따라, '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(SOP)'에 따라 집중사냥지역을 구분한 것임
  - 다만, 집중사냥지역의 총기 포획은 철책 등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 마련 후, 멧돼지 폐사체 추가 발생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포획을 실시할 예정임

### ②에 대하여

- 번식기에 일부 개체의 이동성이 다소 증가하나 수십 km 이상의 이동은 대부분 수렵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, 이에 발생지역에서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, 그 이후에 총기 포획을 추진할 계획임
- 참고로, 환경부는 지난 5월 북한 ASF 발병이 확인 된 이후,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 접경지역 모든 시·군과 전국 양돈농가 주변에 대해 멧돼지 사전포획\*을 허용해왔으며, 그 결과 조치 전 대비 포획 실적이 접경지역은 2.8배, 전국은 2배 가량 증가하였음

\* 시군의 포획단이 피해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하는 것

※ 월평균 포획 실적이 포획 강화 조치 이전 대비 전국 2배, 접경지역 2.8배 증가  
(전국 월 4,042마리 → 7,753마리, 접경지역 월 145마리 → 400마리)